

제29호

同窓會誌



T-50
Republic of Korea Air Force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發 祝 展



회 장 : 박춘택
부 회 장 : 강영식, 김영식, 김영웅, 박덕희,
박상철, 배양일, 신동윤, 이상경,
이상순, 이종양, 이홍우, 정판중,
홍종건
감 사 : 민항식, 배기준
사 무 총 장 : 정민남
후 원 : 공사 12기 사관 일동

空士 總同窓會 第12次 運營期數 出帆

Contents



- 4 축 사
- 6 이 임 사
- 7 취 임 사
- 8 공군소식
- 9 모교소식
- 12 정기총회

기획특집 I

- 13 교육사가 변하고 있다 :
교육훈련의 오늘과 내일

기획특집 II

- 20 T/A-50 개발사업 어디에 와 있나?

회원논단 I

- 25 韓國精神의 具現과 自矜心 回復

회원논단 II

- 30 6·25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독자기고

- 33 계급장에 숨겨진 뜻
- 36 80대 노부부의 컴퓨터 배운 이야기
- 40 날씨 이야기
- 42 시 / 그릇
- 43 문단시인 이영순

총동창회 소식

- 45 정기총회
- 47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 57 전역자 현황(기수별 전역자)
- 59 알립니다
- 61 주소변경

발행일자/2004년 (제29호)

발행인/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공사총동창회

T. 02-823-1091

군. 923-6792

편집 · 디자인 · 인쇄/공군교재창



축사

존경하옵는 윤자중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사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04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홈페이지 자체 제작, 책자형 회보 발간 등을 통해 공사총동창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시고 이입하시는 이광학 회장님의 그간의 노고와 업적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박춘택 총장님께서 신임 회장님으로 추대되신 것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공군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공군에 어려운 문제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사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의 일차적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총동창회를 보다 조직화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군과 국가발전에 더 많이 기여토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안보정세는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재배치 등과 같은 커다란 변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 한 호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공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협력적 자주 국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미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획득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공지와 보람에 넘치는 자랑스러운 공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고, 교육훈련 혁신과 업무수행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국민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정예공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께서 변함없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공사총동창회가 공군발전과 국가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들도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뜻깊은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신임 박춘택 회장님이 이끄시는 공사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17일

이 임 인 사

이임회장 이 광 학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 회원님, 그리고 동기생 이사회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총동창회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1차년도 총동창회 운영기수는 기간 중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당초의 의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성과에 도달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내실화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었음은 오히려 다른 의미의 성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먼저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의 체계화, 동호인 모임행사의 활성화, 애사 시 상부상조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회원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차츰 넓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창회에 불참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폭 넓은 이해와 독려를 통해 총동창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또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들간 대화의 광장 확대를 위한 정보화 도구로서의 홈페이지 개설과 동창회보의 지형을 새롭게 함으로써 앞으로 회원님들의 참여의지에 따라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충언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공사총동창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명확히 정립코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은 안보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의 추축인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급격한 변환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날 영공 방위 임무의 일익을 담당했었고 또 지금은 공군의 임무원수를 성원하고 격려해야 할 우리 동창회원으로서 우려의 시각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과제를 안고 있는 공사총동창회를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박춘택 신임회장에게 인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차기운영을 맡게된 12기 사관회원분들께서 향후 1년간 총동창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한해 동안 뜨거운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선·후배님, 비성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평안과 행운을 축원 드립니다.

2004년 6월 17일

취 임 인 사

新任會長 박 춘 택

존경하는 空軍士官學校 선·후배 동창여러분!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2차년도 空軍士官學校 총동창회 운영을 12기 사관 동문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12기 사관 일동은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시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동창회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와 같은 훌륭한 동창회가 되도록 키워 오신 선배님들께, 그리고 정성을 모아 동창회를 도와 오신 후배 동창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비역 동창회원 여러분, 그리고 현역 동창회원 여러분,

空軍士官學校 1기 선배님들에서부터 금년 봄에 졸업한 52기 사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屋武 요람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아래 가르침을 받고 졸업한 동창생입니다. 예비역, 현역동창 여러분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신명을 바쳐 영공수호 사명을 수행하면서 세계 제일의 강한 공군을 육성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동창생입니다.

사관52기까지 空軍士官學校를 졸업한 동창생은 모두 7,814명으로 예편하신 동창이 2,900여 명, 현역 동창이 4,880여 명인데 총동창회 이사로 계시는 분과 후배 기생별 회장단 몇몇씩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역이든 현역이든 모든 동창들은 하나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空軍士官學校를 잊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교 空軍士官學校에 대한 향수와 애정은 우리 모든 동창들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예비역 동창들은 모교와 母軍 空軍에, 현역 동창들은 모교에 대한 향수와 애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교의 전통과 명예를 계승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비역 상호간, 예비역과 현역, 그리고 현역상호간에도 친목하고, 상부상조하여야 합니다. 12차년도 총동창회의 운영을 맡게 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 오시던 일들도 물려받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비역 동창회 여러분, 그리고 현역 동창회원 여러분,

현역 동창생들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 활발한 동창회 활동이 쉽지 않다하더라도, 우리 모두 마음으로는 서로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총동창회가 되도록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크게 발전시켜 저희들에게 넘겨주신 11차년도 이광학 회장님과 선배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900여 예비역 동창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그리고 4,900여 현역 동창여러분들께 항상 영광과 무운이 장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04년은 「공군 도약의 해」 선포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은 1월 1일(목)에 갑신년 새해를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공군본부



부·감 실장과 함께 호국 영령 및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하였습니다. 한편, 이 총장은 200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금지와 보람에 넘치는 자랑스러운 공군 건설을 위해 「04년을 공군 도약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장군·대령 전역 행사

공군본부에서는 지난 4월 29일(목), 장군 및 대령 전역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육사령관을 역임한 유병구 소장과 전 군수사령관 장희천 소장, 전 공사도서관장 강한종 대령 등 총 7명이었습니다.

전역자들의 신고를 받은 후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을 위해 쏟은 여러분의 노력은 전략공군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군문을 나서도 공군을 항상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식을 가진 후, 공군본부 행사장에서는 의장 행사 및 전역자 사열식을 가졌습니다.



▲ 기수단과 의장대를 사열하는 전역 장군·대령들

공사 제56기 사관생도 입교식 거행

- 김명립(金明鎭) 공사교장, "21세기 이끌어갈 정예 사관생도像 강조"
- 개교이래 첫 3대 동문 가족 탄생
- 형 따라 공사 입교, 형제 보라매 줄줄이 탄생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56기 공군사관생도 입교식이 2월 14일, 김명립 공사교장(중장, 공사 19기)을 비롯한 신입생 학부모, 선배사관생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태국에서 위탁교육 온 나롱삭(Pinthaapet Narongsak, 23) 생도를 포함한 56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17일 가입교하여, 4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생도생활에서 요구되는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체력, 정신력을 배양한 후, 이날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하게 됐다.

입교식에서 김명립(金明鎭) 공사교장은 "앞으로 주어질 4년 동안의 교육기간을 통해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개척하고 선도할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청년장교로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입생들에게 "21세기 첨단 공군을 이끌어갈 우수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선배조종사의 멋진 축하비행으로 그 대미를 장식했으며,

할아버지 정진섭(공사 3기), 아버지 정기영(공사 30기)에 이어 정소원(56기) 생도가 입교함으로써 개교이래 첫 3대 동문 가족이 탄생해 군·내외의 관심을 모았으며, 그밖에 이날 입교식에서는 형 정홍기(55기)의 동생 정신기(56기), 강성현(53기) 생도의 동생 강성용(56기) 군이 각각 입교하여 화제를 모았다.



공사 수석입학 윤지선생도! 본격적인 여성파워 예고!

- 육상선수 출신으로 고교시절 줄곧 우등, 발군의 체력에 靚力도 완벽
-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따라 배운 봉사활동으로 '마음짱'도 겸비
-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증 반납,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력!" 소신 밝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내 육상선수로 이름을 날리던 윤지선(19세) 양이 2월 14일, 강도 높기로 유명한 4주간의 사관학교 가입교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정식 사관생도로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했다.

특히 윤생도는 야무진 체력과 함께 수능성적을 비롯한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 공사 입교 성적도 전체 1등으로서 수석 입교자가 대표로 행하는 입교 선서도 당연히 윤생도의 몫!

수원 영북여고 출신의 윤지선생도는 수원시 학생체육대회 높이뛰기 2위, 멀리뛰기 1위, 100m 2위 등 '체력짱'이기도 하다.

또한 윤생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무원인 어머니를 따라 양로원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익혀 왔다고 하며, 가입교 훈련을 받는 도중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의 E-mail로 전해 듣고서도 전혀 미동도 없이 훈련을 계속했다고 한다.

지난 해 여성 첫 수석 졸업생(공사 51기)을 배출한 바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윤생도의 이번 수석 입학에 계기로 본격적인 여성파워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지난 한달 동안의 훈련은 난생 처음 접해본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윤생도는 "좋은 체력 조건과 강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 큰 힘이 되겠다."고 입교 포부를 밝혔다.

空士 개교 이래, 첫 3代 동문 가족 탄생!

- 1代, 정진섭(예 대령) 무스탕, 세이버, 제공호의 빨간 마후라
- 2代, 정기영(대령(진)) 졸업 후 의대 진학해 군의관으로 활약
- 3代, 정소원(56기 사관) "代 이어 공군인으로 살 것" 다짐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걸친 '3代 사관학교 동문'이 탄생하였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 청구고를 졸업한 정소원(19세) 생도.

정 생도는 할아버지 정진섭(공사 3기 예 대령, 72세), 아버지 정기영(공사 30기 대령(진), 44세)에 이어 3대째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할아버지 정진섭 예비역 대령은 1954년 공사 3기로 임관하여 F-51 무스탕, F-86 세이버, F-5 등을 조종한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군 창군 이후 초창기부터 중흥기까지 복무했다.

아버지 정기영 중령은 사관학교 졸업 후 서울대 의대로 진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미 항공우주의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항공우주의학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술지에 '전투기동 중 심장 부정맥에 관한 연구, 2001'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부산 국군통합병원장으로 복무하고 있다.

정 생도가 밝힌 지원 동기는 "아버지를 따라 공군부대 관사에서 살면서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사관학교를 지원했다"라고 밝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앞으로 공군 사관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어릴적 꿈인 전투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2004. 6. 17.)



공사총동창회는 제11차 정기총회에서 박춘택 전 참모총장을 제12차년도 회장으로 하는 12기 운영기수의 회장단이 출범하여 1년간 총동창회의 업무를 11차년도 운영기수인 11사관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부대 방문



제8전투비행단 방문



제3훈련비행단 방문

교육사가 변하고 있다 : 교육훈련의 오늘과 내일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은 '선진 정예공군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평시 교육훈련이 전시 군사력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군의 교육훈련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사령부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 설정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교육사령부는 1951년 대구 근교 자인에서 항공교육대를 모체로 시작하여 1956년 대전에서 기술교육단으로 창설되었으며 1973년 교육사령부로 승격되었고 1988년 진주기지로 이전한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공군의 장교, 부사관, 병의 양성교육 및 특기/보수교육 등 선진 정예 공군장병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호 동창회지의 특집기획으로 사관생도를 제외한 모든 공군 입대장병을 군인화하고 공군 전 분야에서 항공우주군 건설의 주역을 담당할 선진 정예공군 장병을 육성하고 있는 교육사령부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였다.

- 편집자 -

교육사령부 교육현황

교육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총 273개 과정으로 이는 공군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99개 교육과정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양성교육과 특기/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양성교육은 민간인을 군인화 하는 교육 훈련으로 군에 입대하는 장병을 군대 규율 속에 숙달시키고, 군인 기본자세 확립, 투철한 군인정신 함양 및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전투력 배양을 통하여 장차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전술전기 및 잠재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교육사의 양성교육은 사관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신병 기본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기술고등학생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특기/보수교육은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능력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으로써 계급과 직책에 따른 특기별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고 정신교육 지도, 지휘통솔 및 부대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교육훈련 후 실무부대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지식과 능력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교육사령부 변화의 모습

현대전은 공군력이 좌우한다. 그만큼 최첨단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과학군이자 기술군인 공군의 특수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군 교육훈련의 요람 교육사령부는 실전적 기본군사훈련과 실무 연계형 특기·보수교육을 통한 정예 공군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보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사 교육훈련의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 중에 있다. 본 지면을 통하여 교육사령부가 현재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선·발전내용과 아울러 교육사령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강한 군인 만들기



국가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장환경을 극복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장병 양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장병은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만이 양성될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실전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이라크와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Warrior Ethos(워리어 에토스)', 즉 '전사의 기질'을 보유한 장병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사기질을 갖춘 군인이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기본 전투기술 및 주특기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군인을 의미한다.

우리 교육사령부 또한 기본군사훈련 과정중



개인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전투능력인 사격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소된 표적지를 사용하여 원거리 목표 명중률을 향상시키고, 5발 2회 실시하던 영점사격을 3발 3회로 변경 실시하고 감사적/감사들을 이용하여 조준실습 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격훈련 방법 개선을 통해 사격훈련의 효과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과거보다 사격기량을 배가시키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입대 장병의 극기력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구보거리 및 속도를 증가하고 일과 후 구보를 추가로 실시하여 구보횟수를 증가하는

등 기초체력 배양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영내에서 실시하던 신병 행군훈련을 야외 산악행군으로 변경하고 훈련 내용도 단순 행군훈련에서 화생방훈련을 포함한 종합훈련으로 개선하여 인내심 및 극기력 배양과 함께 훈련성과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갖춘 장병 양성을 위하여, 기본군사훈련 주차별로 정신교육 목표를 재설정하여 그 목표에 부합되는 주간 및 하루단위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사령관 등 17명의 지휘관·참모를 활용한 경험적 정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문화된 국방대 순회 정신교육단의 강연을 정례화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사령부는 정예 공군장병 육성을 위해, '93년부터 4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신병 기본군사훈련 교육기간을 타군과 동일한 수준인 6주로 환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4주 교육기간으로는 민간인을 군인화하여 강한 공군 장병을 양성하기에는 교육시간이 부족함을 절감하여 교육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연간 양성인원의 증가와 교육 수용시설의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작된 신병 수용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2007년 1월부터 6주로 환원할 계획이며, 과도기적으로 내년부터 5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실무연계 교육강화

교육훈련의 변화 요구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교육훈련의 내용·방법·여건 등 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훈련 소요와 실무활용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사령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실무연계 교육강화는 교육 수료 후 실무부대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Zero Base 개념하에서 모든 특기·보수교육 과정의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참모총장 지휘지침에 의해 “교육체계 혁신”이라는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변화중 교육사령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안으로, 교육훈련의 수요자인 교육생과 실무부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목표를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사에서 가르칠 내용과 실무부대에서 직무교육 및 실무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기량·장비·배속지별 분리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만일 입대장병의 선수지식 보유 정도와 교육 후 실무부대에서 담당하게 될 임무 및 장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기본임무와는 무관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불필요한 교육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량·장비·배속지별 분리교육은 실무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기간의 단축 효과 등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고 있다.

교육의 실무연계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30개 전 특기·보수교육과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년 중 검토 대상으로 143개 과정을 도출하였으며, 현재까지 52개 과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교과과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과정 검토는 과거 교육부대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과정 검토와는 달리 교육사와 공군본부 해당 부감실 및 실무부대의 검증 등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30개 특기·보수과정의 교육과정표, 4,650개 과목의 교안 및 교수

계획서, 341권의 교본을 공군본부 해당 부감 실 및 실무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절차를 통한 교육 과정 개선은 현 상태 진단 및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교육훈련 방법의 효율성 제고

교육사령부에서는 현재의 주어진 교육환경 하에서 최상의 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실습 대기시간 축소를 통해 실습기회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급편성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학급 규모를 축소하여 분반을 확대하면 교관 개개인에게 수업시간이 증가되는 부담은 있지만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은 그만큼 증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시간이 배당된 실습과목의 경우 분반을 통하여 대기시간을 4시간 줄였다면 4시간의 수업시간을 증가하는 효과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사령부가 급년 중 분반을 통하여 달성한 실습과목의 대기시간 축소 비율은 평균 40%이며, 시간으로는 과목당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4시간의 대기시간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교육시간을 축소하거나 실습기회를 증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외에도 가입단 전형기간 중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피복측신 시간에도 소단위 규모로 전형일정을 진행함으로써 개인별 대기시간을 축소하여 발생한 잉여시간을 군대예절, 군법, 정신교육 및 군가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신병 교육기간을 보충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입단 전형일정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입단 후 시작되는 정식 교육훈련에 대비하여 입대장병 스스로가 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입단 후의 교육훈련 성과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훈련병의 의무대 수진 및 처방약 수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진 환자를 위한 순회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진 후 처방전 및 처방약을 조교가 일괄 수령하여 배포함으로써 개인별 수진시간을 2시간 단축, 학과 결손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업 결손으로 인해 개인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한 일부 훈련병의 수진 기피현상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초도 지급하는 양말을 일괄 세탁한 후에 지급하여 염료와 땀의 혼합작용으로 발생 가능한 피부병의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훈련 전 연병장 살수작업을 통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 등 훈련병 개인



건강 증대를 통한 교육훈련의 효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훈련 과학화 및 정보화

사회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 교육훈련의 정보화·과학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요구는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의 '자동화', '분산화' 및 '이동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자동화는 수동작업으로 처리하던 교육훈련 활동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인터넷 기술 등으로 과거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처리되었던 업무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교육훈련의 분산화는 교육훈련의 주체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원격지에서 학습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며, 교육훈련의 이동화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하는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학화 변화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사



령부는 중·단기적으로 학습준비, 학습진행, 학습 후 평가 등 모든 교육 진행과정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디지털 교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05~'09년 기간 중 총 67개 교실을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실습형 디지털 교실은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등의 다양한 교육자료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장으로써, 교관의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 활용과 컴퓨터 기반교육(CBT)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교관 및 학생의 학습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검색실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령부 내에 CBT 개발 전담조직을 편제하여 CBT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실무연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도서관, 원격학습체계 및 과학화 학습진단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훈련의 정보화·과학화를 통한 교육성과 극대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 전문 교육훈련을 위한 병과학교 개편

미래 전장환경과 무기체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기술교육 발전을 위해 병과학교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의 기술학교, 정보통신학교, 방공포병학교 등 3개의 병과학교 체제가 2006년부터는 항공행정학교 및 항공군수학교가 창설되고 기술학교는 항공무기정비학교로 개칭되어 5개의 병과학교 체제로 구축될 예정이다.

전문 병과교육부대로의 체계 개편을 통하여 최첨단 항공무기체계 및 군수지원체계의 변화

에 부응하여 보다 전문적인 고도 기술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병과학교 개편에 대비한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제도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맺음말 : 정예 공군장병 육성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겸비한 정예 공군인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및 교관·교육생의 의식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사령부에서는 매주 지휘관·참모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훈련 관련 보완·발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등 교육훈련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교관 스스로가 변화주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평가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관 자질향상 및 교관평가제 시행,

그리고 교관 연구
— 보고서 작성

제도화를 통한 교관의 전문성 증대와 연구품토 조성 등 제도적 장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노력 외에도 교육사령부 구성원 개개인은 자기혁신을 통한 보완·발전 의지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관계관은 물론 교육훈련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지원부서의 사병에 이르기까지 '오늘 흘린 나의 땀이 공군의 미래를 밝힌다'는 신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이 우리 교육훈련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공군이 장차 항공 우주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百年之大計인 교육훈련의 발전을 통한 공군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사령부가 추진 중인 교육체계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군을 사랑하는 공사 총동창회 여러 선·후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T/A-50 개발사업 어디에 와 있나?

정 덕 호(공사 2871)



T/A-50 사업 개황

T/A-50 개발사업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소요를 확보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국제협력 연구개발로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고등훈련기 개발을 위한 탐색개발은 1992년 국과연(ADD) 주도로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지원 하에 착수되어 1995년에 KTX-2의 개념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997년 시작된 체계개발은 2005년 9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2002년 8월 T-50 초도 비행을 성공한 후 2003년 12월에는 체계개발과 병행하여 T-50 초도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양산 1호기가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후속양

산계약을 체결하여 T-50과 함께 전술입문기 및 경공격기 소요도 충족할 예정이며, 동시에 해외수출 협상도 추진 중이다.

飛上の 꿈을 T-50에 실은 사람들

「2002년 8월 20일, 우리 국토 최남단에 자리잡은 사천 비행장의 활주로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항공기 한 대가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떠 올랐다. 그날 밤 몇몇 언론에 단신으로 보도되었을 뿐인 이 조용한 이륙은,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이들이 이십여 년에 걸쳐 흘린 땀의 결과물이었다.」

이 글은 2003년 8월 한국항공(KAI)이 발

행한 'T-50의 꿈과 도전'이라는 책에서 T-50 사업의 태동부터 초도 비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쓰여진 글이다. 여기에 짧게 표현된 '많은 이들'에는 T-50 사업에 참여한 공군과 국과연, 품관소 등 정부부서 전문가들과 한국항공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T/A-50 개발사업은 어렵게 시작되어 약 15년간 술한 우여곡절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노력했던 정부기관과 업체 요원들의 고뇌와 노력이 숨어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오로지 후배들에게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공군 선배님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가장 컸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경험도 없이 초음속 항공기 개발사업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도전한 개척정신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일대 사건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고등훈련기 개발의 배경과 과정의 어려움

'고등 훈련기 사업'은 1989년에 최초로 소요가 제기되었다. 공군은 당시 국과연이 개발 중이던 기본 훈련기(KTX-1)의 상위기종으로 T-33이나 TF-5B 같은 노후 고등훈련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훈련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1989년초 국과연은 고등훈련기 사업을 공식 건의하였

으나 공군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공군이 시급한 일부 증기소요만 국외도입하고 이후 소요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항공기로 충당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함으로써 고등 훈련기 개발을 위한 KTX-2 사업이 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1991년 국방부 획득심의위원회와 전력증강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KTX-2의 탐색개발은 KF-16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개념설계 관련기술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개발초기의 고등훈련기 명칭은 기본훈련기인 KTX-1의 상위기종을 의미하는 KTX-2로 결정되었으며, 별칭은 우리 정서에 맞고 강하면서도 날렵한 이미지의 새 이름을 따서 'Golden Eagle'로 명명하였다. 이후 공군은 2000년에 공군창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등훈련기는 'T-50', 경공격기는 'A-50'으로 항공기의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별칭은 그대로 'Golden Eagle'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KTX-2의 탐색개발은 1992년부터 국과연 주도 하에 삼성항공과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및 LG정밀 등 국내 8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기술협력을 제공하여 추진되었다. 1995년에 확정된 고등훈련기의 사양은 최대 이륙중량 26,000파운드이며 추력 대 중량비가 약 1:1 정도로 기동성이 강조된 마하 1.4의 단발 복좌 제트 항공기였다. 그러나 탐색개발 완료 후 2단계 계획인 체계개발사업을 준비하면서 향후 양산



공군 모두가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T/A-50 사업추진 과정에는 항공우주산업의 국가 전략적 가치와 중요

과 수출문제까지도 고려하던 KTX-2 사업은 1995년 체계개발에 필요한 예산요청이 재경부로부터 거부되자 사업의 전면중단이 라는 위기에 부딪혔다. 결국 약 2년 동안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나, 1997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 심의회에서 KTX-2 체계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7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

1997년에 시작된 체계개발은 2005년 개발완료로 목표로 항공기체계, 훈련체계, 군수체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체계를 동시에 개발하는 개념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체계 개발단계부터는 소요군인 공군이 직접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입장에서 각종 요구를 반영하고 개발일정 및 비용관리 등에 있어서 효율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명분에 걸맞는 별도의 정부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고 소요비용을 국방비로 충당 하게됨에 따라 국방부나

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국내 초음속 항공기 개발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예산삭감 및 지연지불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군과 개발을 담당한 한국항공이 해결해 나가야 할 몫이지만, 국가적 과제인 T/A-50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미래에 져야 할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오로지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할 때다.

T/A-50 개발사업의 의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T/A-50 개발사업은 한국항공의 주도적 개발과 공군의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2002년 8월 T-50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지금까지 4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아음속과 초음속의 모든 영역에서 그 탁월한 비행성능을 입증하여 체계개발성공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이 가지는 국가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위상

이 드높아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하게 되면 국민적 사기와 자긍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첨단 항공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발전시킨다면 항공무기체계의 자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총체적 종합기술산업의 효과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함께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직구매시 해외로 유출될 비용을 국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총생산 및 고용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향후에는 항공기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위선양과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 효자산업이 될 것이다.

넷째, 미래의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군은 최첨단 미래 전투기 운용과 실전적 훈련에 적합한 고등훈련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T-50 고등훈련기와 동시에 개발 중인 A-50 경공격기의 경우, 현재 공군의 주력기인 F-16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전력이 도태되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50은 최신 항전장비 장착 및 독자 훈련체계가 구축되어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T/A-50 개발 이후 수출 및 발전 전망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의 기본형상은 레

이더, 기총 및 무장장착 능력을 보유한 전술 입문기(FLI : Fighter Lead In)로서 여기에서 레이더와 무장능력을 제외한 형상이 고등훈련기(T-50)이며, 정밀폭격능력(RWR, JDAM, WCMD 등)을 추가한 형상이 경공격기(A-50)이다. 2005년 9월 T-50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초도 양산 항공기가 납품되어 한국공군이 운용하게 된다면, 세계의 이목은 한국의 T-50(Golden Eagle)에 집중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고등훈련기 시장에는 T-50을 능가하는 항공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T-50급 고등훈련기/경공격기(T-38, Hawk, F-5, A-4 등)는 대부분 70년대 전후에 실전 배치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기체 노후화에 따른 대체요구가 발생되고 있으며, 규모는 2030년까지 110개국으로부터 6,1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Hawk 등 경쟁기종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점유율 25%로서 약 800여 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항공(KAI)은 현재 아랍에





보다 100배 이상 빠른 연산능력과 충분한 저장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레이더와 무장 탑재 능력을 일부 개조한다면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정밀폭격능력까지 구비할 수 있는 확장성도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T-50 사업의 성공은 향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보다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T-50 사업의 성공은 향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보다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T/A-50 항공기를 기초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끝없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F-16의 경우 1970년대초 공대공 경전투기로 개발된 이후 공대지 등 다목적기로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되었으며, Block1에서 시작하여 현재 Block60까지 개량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 항공기 신규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일정이 소요되므로 향후 다양한 목적으로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초기 설계개념에서 미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T/A-50은 기본적으로 F-16에 준하는 성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투기로 활용하는 데는 최소한의 개조만으로 가능하다. 더욱이 T-50의 항공전자 무장제어 컴퓨터는 F-16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공군이 T/A-50 사업을 관리하게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오늘이 있기까지 T-50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어려움이나, IMF 사태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이 순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 사업을 위해 수년간 정성을 쏟아왔던 공군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지금은 공군 후배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T/A-50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머지않아 우리가 만든 초음속 항공기로 우리의 후배들이 비행훈련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공군에는 꿈과 희망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공사 28기 중령
(현)항사단 고등훈련기처 사업관리과장



김도식(공사 8기)

韓國精神의 具現과 自矜心 回復

우리도 어젠가는 잘 살게 되겠지! 이런 기대와 희망을 하늘같이 믿고 일하고 또 일하지 않았던가. 드디어 造鋼 世界 1位, 造船 世界 1位, 국민소득 1만불, IT 최강국,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부하게 되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교수도 한국의 發展史를 빼면 20세기 역사가 되지 않는다고 극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학생, 임산부, 청장년 할 것 없이 미국 비자 신청자가 줄을 잇고 서 있다. 왜 이토록 미국 이민 가기를 열망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自尊心도 없고 挑戰的이고 克服하려는 主人意識도 없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탈피하여 보다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 가서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평가를 받고 살고 싶은 憧憬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를 짚어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안을 摸索코져 한다.

1. 美國民이 부러운 이유

미국민이 부러운 것은 미국민족은 없지만 星條旗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의 美國民이 된다는 것이다. 마치 인종 전시장 같은 多民族 사회지만 성조기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보면 경이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은 국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법에는 단호하고, 약속은 지키고,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고, 기회는 균등히 주어지는 등 국가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그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고 국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사회의 보람 있는 일에 기증하여 명예를 쌓는다.

그러니 國旗는 그 나라의 주권이요, 명예요,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볼 때 미국민이 성조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자부심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2. 미국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대한 반작용도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기준이 없다. 법과 질서는 무시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불분명사회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원로도 몰라본다.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권위는 사라졌으며, 큰소리 치면 통하고 양보하면 손해다. 내 고장만은 혐오시설이 절대 못 들어오고, 先占하면 이기는 利己主義가 판치는 사회, 온갖 패거리들이 시민 단체란 이름으로 저마다 나서서 사회혼란을 부추긴다.

이러다가 만약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저마다의 패거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아찔하다. 그뿐만 아니고 理念 때문에 갈라선 상대를 동족이란 명분을 붙여 우리 쪽만 일방적으로 理念을 퇴색시키고 있고,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상대는 核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자기들은 평화주의자라고 떠들면서 主敵이 없다고 한다. 주적이 없는데 주민을 굶기면서까지 강성대국을 외치며 100만이 넘는 군대가 총부리를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혼란스런 사회 현상에 대해 어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기준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사회가 부러운 것은 당연하다.

3. 우선 한국정신을 具現하여 自矜心을 회복하자.

미국은 미국정신이 있다. 청교도정신, 개척정신, 실용주의 정신이 그것이다.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이 정신에 충신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연임을 간청했으나 先例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고사하여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했다.

16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미국이 추구하는 理想을 앞세웠고 결코 남과 북의 감정적 대립은 하지 않았다.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닉슨 대통령은 도청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이 추구하는 理想에 반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고 한다. 國益을 위한 일에는 의회에서도, 군에서도, 사회의 각 분야, 각종의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솔선하여 일치 단결하는 미국정신을 지켜나가는 나라가 미국의 지도자들이다.

일본도 무사정신, 大和魂이란 것이 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정신에 충실했고 어긋났을 때는 스스로 죽음으로 청산했다. 이스라엘은 탈무드, 이스라엘 율법이 있고 영국은 신사도 정신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한국정신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홍익인간, 배달의혼, 선비정신이라고 하지만 구체성이 없고 애매하다. 어느 지도자가 垂範했는지 지켜온 전통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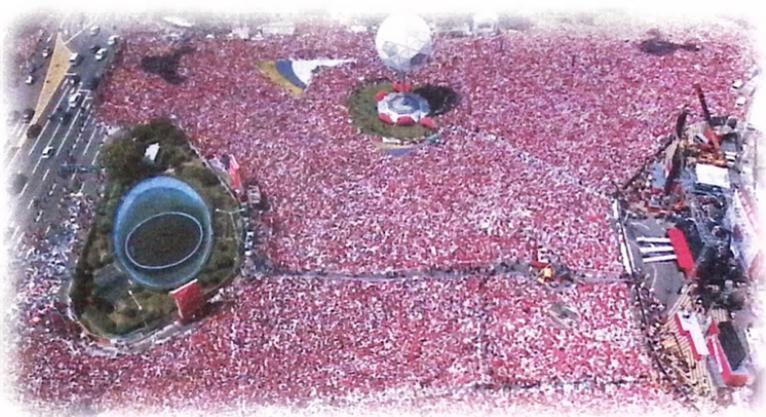
전통적으로 한국의 지배 계층은 평소에는 거들먹거리고 호의호식하다가 외부의 위협이 닥치면 제일 먼저 출행망을 치거나 뒤꽂무니를 뺐다.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韓末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6.25때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국가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을 안심시킬 구체적 대안제시는 없고, 당파싸움에 열이 빠진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국민하면서 진정 걱정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모두가 정신 없는 행동으로 보이고 얼빠진 행동으로 보인다.

4. 우선 우리정신 한국정신(태극혼)을 찾아야 한다.

- 옛날 고구려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나는 고구려인이다” 하고 20번을 외쳤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강렬한 조국애와 자존심이 서려있는 외침인가!!
- 신라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 묻혀 용이 되기를 자원했다. 在龍護國護佛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 시대에 환생을 바라지 않았던 왕이 세계 어디에 있었던가!!
- 성덕대왕 신종은 황동 21톤을 녹여 30년에 걸쳐 온갖 정성으로 수없이 반복하면서 오로지 용의 울음소리를 재현하겠다는 일념의 완성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보물이 되었다.





- 이순신,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지사는 오늘 우리 모두의 고귀한 귀감이다.
이 분들의 위대한 정신이 우리들 피 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
- 가깝게는 日帝로부터의 해방과 6.25전쟁을 겪은 한국은 먹고 살 것이 없었다.

'64년도 국민소득 \$100. 유엔(UN)보고서에 아세아에서 가장 희망 없는 나라 한국이었다. 매년 겪는 보리고개, 草根木皮의 절망에서 외국의 원조로 연명하면서도 자식들은 공부시켰다. 이 무렵 영국의 어느 신문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지언정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난관을 특유의 끈기로 극복해 냈다. 미국에서는 접시 닦으며 공부하고 서독에서는 간호사로, 광부로 일하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불과 20여 년 만에 국민소득 \$6,000로 끌어올린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우리국민의 저력을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다.

88서울 올림픽의 성공 개최, 10번 이상의 세계기능 올림픽의 제패, IMF때의 금모으기, 월드컵 때 보여준 붉은 악마들의 단결된 힘은 세계를 감탄케 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최강의 IT 강국이 되지 않았는가 !! 우리국민은 명분이 있고 할 가치가 있는 일에는 희생적이고 적극적인이며 용감하다. 우리국민은 분명 한다면 해내는 국민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살아 남기 위해, 일에 매달리느라고 우리정신을 잃어버리고 지내왔다.

한국인이면서 韓國精神이 무엇인지 太極魂이 무엇인지 우리의 價値基準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달려만 왔다. 우리의 後世에 傳受할 여유도 없었고 올바르게 傳受할 방법도 개발하지 못했으니 요즘의 혼미한 사회는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바로 우리정신, 한국정신, 太極精神, 즉 태극혼의 源流라고 생각한다. 이 원류를 재정립하여 확실하게 우리의 정신으로, 자긍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 정신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태극혼임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挑戰的이고 克服하려는 主人意識이 생길 것이다.

美國市民이 되었어도 韓國人이었음에 自矜心을 느낄 것이다.

5. 태극혼에 대한 제언

태극정신이 충만한 한국인은 정의롭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정직하고, 질서를 지키며, 남을 배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德目を 세계인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진취적이고 실천적이며 자기 희생적 봉사정신을 덕목으로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태극혼(太極魂)은 말로서만 말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 體得되어야 하며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것을 제언한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인들과 서로 친숙해 지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서로 존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제품도 세계 시장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올림픽 10위권 진입도 빛을 발할 것이며 우리문화도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태극기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미국을 부러워하듯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공사 8기
(현)주식회사 삼공 대표이사 회장

6·25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이 중 학(명예 군사학 박사)

일찍이 프리시아의 비스마르크 수상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지만,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의 민족사상 최대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전쟁을 체험하고도, '자신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미치지, 이것만을 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서둘러 '6·25전쟁사-그 진실과 교훈을 찾아서' (2001)를 발간했다. 이제 전쟁을 체험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또한 소련의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책·전략·전술에 대해 잘했다·못했다의 價値論이 들어있는 戰爭史를 꾸며 후손들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지면에서는 필자는 간략하게 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과 한국군의 初戰敗因을 究明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스탈린·金日成·毛澤東의 南侵謀議

우리나라 史學界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제1·2권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 (1981, 1990)을 발표했다. 그의 저서, 제2권의 제18장은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제목이며, 거기의 결론은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다? 이 의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결론이다. 김일성과 그의 대표단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련에 체재하면서 스탈린을 세 번 만나 결국 남침의 승인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교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결정적 史料이다.

“스탈린은 첫째, 미국이 결국 개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하고, 둘째 조선의 해방은 중국 지도부가 이를 찬성할 때만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공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그것은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① 38선에 인접한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다. ② 북조선의 최고 권력집단이 새로운 평화통일 제안을 제시하며, 분명 이러한 제안들은 상대방에 의해 거부될 것임.



③ 북조선측이 공격하고 남측이 반격할 후에 전선이 확대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전쟁은 速戰速決을 지향해야 한다. 남한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북조선은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재차 毛澤東과 상의하도록 金日成에게 촉구했다. 북조선군의 동원은 1950년 여름까지 완료하고 이 때까지 소련 고문관들의 도움을 받아 조선군 참모들이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한 날짜는 1950년 4월 10일이며, 이에 앞서 소련의 총참모부는 남침용으로 작성한 「三日作戰」의 전략계획을 이미 작성했다. 그리고 실전경험이 풍부한 작전계획 수립가인 바실리에프 중장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하기 전인 1950년 2월 23일 이전에 평양에 와서 남침용의 작전계획을 5월 27일에 완성했던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남침에 대한 毛澤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전제조건 때문에 박헌영과 함께 5월 13일 北京에 가서 毛澤東을 만나 15일에 동의를 얻었다.

1950년 6월, 남북한에는 ①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 등의 생산 능력, ② 1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는 전략·작전계획 수립가, ③ 1개 사단 이상 지휘한 實戰體驗者의 세 가지 不在로 인해, 북한이 주장하는 「民族解放戰爭」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얻고, 또 毛澤東의 동의를 얻어 6·25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에 따라 開戰 3일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그런데 3일간 지체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한국군과 미군에 있어서는 숨을 돌리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인민군에게는 재앙의 씨가 되었다. 1950년 7월 1일 평양주재 소련대사에게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경고 발언을 했다. “동무는 북조선 군사 당국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 북조선 군사 당국은 전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는 진격을 멈추기로 결정하였는가?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진격은 의심할 나위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남조선이 빨리 해방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국군 초전의 패인과 북한의 간첩들

한국군은 개전 3일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고 패배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첩보전일 것이다. 평양주재 소련 대리대사인 툰킨은 1949년 9월 12일 김일성·박헌영과의 논의한 내용을 모스크바에 상세히 보고하는 가운데, “북조선이 남조선군의 모든 부대 내에 첩보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월북·반란사건, 그리고 초기 전투의 주요한 패인은 여기서 유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蔡秉德 육군 총참모장의 부관 나최광 중위는 한국군의 軍籍에도 없는 자이다. 총참모장 집의 식모 말에 의하면, 개전 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지 않고 집을 지키다 자살했다고 말했지만, 아마도 인민군으로 원대 복귀했으리라 추정한다.

필자는 1960년대 후반, 공군사관학교 교수 부 군사학과장(중령)으로 있을 때,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의 文熙奭 위원장을 방문하여 蔡秉德 총참모장의 모순된 여러 조치, 즉 ① 방어되지 건설 전의의 목살, ② 1950년 6월 10일의 군 수뇌·사단장의 인사이동, ③ 비상경계를 6월 23일에 해제하여 주말의 외출·외박의 실시, ④ 對戰車砲를 수리 명목으로 회수, ⑤ 전방사단의 예측 변경, ⑥ 6월 24·25일의 파티 등인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 文위원장은 필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2차의 심야 파티는 國一館에서 25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비용은 鄭國殷이 지불했고, 더 큰 사건이 있지만” 하더니 말을 멈추고 말았다.

鄭國殷(당시 연합신문 주필)은 1953년 8월 31일 육군 특무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동년 12월 5일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언도를 받아, 1954년 2월 1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필자는 30여 년간 蔡秉德·鄭國殷의 행적을 찾으려 애썼으며, 이제 고희의 중반을 넘어 서게 되었기에, 금년 2월 14일 육군본부 법무감실 고등검찰부 기록실장 앞으로 공문을 내어 정국은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2월 26일자 육군 참모총장(전결: 고등검찰부장) 명의로 정국은에 대하여 판결문 색인부를 열람한 바 관련 자료가 없음을 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문제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究明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6·25전쟁은 3년 1개월에 걸쳐, 인적 피해(전사·부상, 민간인 피살 및 행방불명 등)는 남북한의 2,256,000여 명, 중공군의 972,600여 명, 유엔군의 545,908명이 있으며, 전 국토는 철저히 황폐해졌고, 온 민족이 험하고 굶주리게 된 分斷의 固定化, 상호간의 불신과 증오, 그리고 민족사상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대단히 중대하다.

오늘의 한반도 군사정세는 마치 6·25전쟁 직전을 방불케 하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다만 필자 혼자만의 기우일까? 요즘 남북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추세는 화해·평화로 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전술적 변화이지, 결코 진정한 전략적 변화는 아닌 듯 하다. 그 이유는 기아선상에서 해매는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거지처럼 식량을 구걸하면서도, ‘강성 대국’을 외치면서 핵무기·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과대한 110여만의 병력을 보유하면서 그 주력을 휴전선에 배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6·25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만반의 임전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전쟁억제의 기본 원칙이며, 그래야 평화적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공사 3기
진 국방대학원 교수

계급장에 숨겨진 뜻

숫자와 호칭을 헷갈리지 말자! : 병사 계급장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병장보다 높은 계급이 뭐예요?' '중위는 얼마나 높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 주시는 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대에 아들 혹은 남자친구를 보낸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병사 계급입니다. 특히 여자 친구분들 잘 읽어보세요.

계급 순서대로 보면 이등병(이병), 일등병(일병), 상등병(상병), 병장의 순서입니다. 영어로는 호칭이 완전히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국군은 육·해·공군의 계급 호칭이 동일하죠. 많이들 혼동하는 것이 일병과 이병의 서열입니다! 일(한자로 '一')병이니까 당연히 막대 하나가 아난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숫자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병은 영어로 'Private First Class'입니다. 2등급보다는 1등급이 높죠.

상병은 말 그대로 윗 등급이기 때문에 '上' 등병. 그리고 병장은 '병사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 '말년 병장'을 별도의 계급이라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군대의 허리·살림꾼 : 부사관 계급장

부대의 살림과 실무를 맡아 하는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순서입니다. 대체로 전쟁영화나 옛 유행가에 많이 나온 계급이라 잘 아실텐데, 이 중에서 좀 낯선 계급이 바로 '원사'죠. 부사관 중에서 가장 원숙하고 군생활 경험이 풍부한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군부대 어디를 가든 각 대대의 분위기를 잘 이끌고 든든한 살림꾼 역할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 바로 '원사'들이죠.

부사관 계급장은 V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 혹은 지붕 모양에서 착안한 것인데, 군대 안에서의 부사관 계급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후에 성장과 도약, (장교와 병 사이의) 다리 역할, 승리 등의 추상적인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V모양 하나가 하사, 둘이 중사, 셋이 상사이며 원사는 상사 계급에 별이 붙어 있습니다.

땅 속, 땅 위, 하늘을 아우르는 상징 : 장교 계급장

그 다음이 장교입니다. 지휘 계급이죠. 위관의 지위는 준위, 소위, 중위, 대위의 순서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계급은? 가장 낮아 보이는 준위입니다. 준사관은 각 업무분야 원사 중 전문적인 책임감독관으로 선발된 계급입니다.

보통 부대에서는 '감독관'이라고 부르죠 (육군의 준위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위관의 계급은 뾰족한 마름모입니다. 소위부터 하나씩 숫자가 늘어나고 준위는 금색 마름모 하나입니다. 위관장교의 마름모꼴 계급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일컬어지는 금강석을 표현한 것으로, 초급 간부의 국가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관급은 역시 계급장 갯수에 비례하여 소령, 중령, 대령의 순서로 올라갑니다. 흔히들 '무궁화'라고 잘못 알고 있는 영관급 계급장은 사실 마름모꼴의 계급장을 아홉 개의 대나무잎으로 둘러싼 것입니다.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을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공개합니다! 무궁화 아니죠? 영관 계급장은 마름모 형태가 상징하는 '의지'에 대나무의 '기상과 절개'라는 의미를 더한 것이랍니다.

장관급 장교(장군)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의 순서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장관급 장교의 계급은 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 군의 모든 경륜을 익힌 계급이라는 뜻이죠(이런 맥락에서 원사계급에 별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교 계급

장은 땅 속의 광물, 지상의 식물, 천상의 별로 구성되어 우주를 표현하는 동시에 수직적 구조를 연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만의 고유한 표시-무궁화 받침

한편 장교 계급장 밑의 무궁화 받침은 1975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관급 계급장의 별이 외국군 계급장과 동일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고유한 특성으로 부착하게 된 것이죠. 이후 1980년 영관·위관 계급장에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는 부사관의 사기진작과 간부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부사관 계급에도 무궁화 받침을 부착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의 계급장 비교...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모두 같습니다. 물론, 형태만 같은 것이고 각 군별로 색상이나 부착 위치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각 군별로 계급장의 모양과 명칭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의 계급장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군의 계급체계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 계급엔 무궁화 잎 부착

부사관은 한국 공군의 경우 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4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니다. 반면 미 공군의 경우 모병제에 기반한 직업군인 체계를 가지고 4개의 계급 체계하에 8개의 세부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사 1, 중사 2, 상사 2, 원사 3개의 총 8개의 계급체계이며, 부사관의 최고 계급은 주임원사(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force)입니다.

병사의 경우 한국 공군은 부사관과 같이 명확하게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의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병사는 5개의 계급 체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상병은 Senior Airman, 일병은 Airman 1st Class, 이병은 Airman Basic과 Airman으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장(Staff Sergeant)을 제외하곤 Airman이라

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공군에는 준사관이 없어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의 계급 체계에 대한 비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공군의 준사관 계급이 미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군의 경우 각종 양식이나 서식의 계급란에 해당 계급을 적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군별로 계급장 모양이나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상 미군에서는 신분증이나 공문서 등에 계급장을 표시할 때 등급(Pay Grade)을 'O-1' 이라고 간단히 표시하기도 합니다.

Pay Grade	Rank	계급	미 공군	한국공군
E-6	Technical Sergeant	하사		
E-7	Master Sergeant	중사		
E-7	First Master Sergeant	중사		
E-8	Senior Master Sergeant	상사		
E-8	First Senior Master Sergeant	상사		
E-9	Chief Master Sergeant	원사		
E-9	First Chief Master Sergeant	원사		
E-9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force	주임 원사		

Pay Grade	Rank	계급	미 공군	한국공군
E-1	Airman Basic	이병	None	
E-2	Airman	이병		
E-3	Airman First Class	일병		
E-4	Senior Airman	상병		
E-5	Staff Sergeant	병장		



자료출처 : 공군뉴스레터26호('03.12.4.)



80대 노부부의 컴퓨터 배운 이야기

공사 11기(예 대령)
한 계 섭(동명정보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최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컴퓨터에 관한 화제가 자주 나온다. “컴퓨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분들도, 또 “컴퓨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에 공감하기도하나 컴퓨터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컴퓨터를 모르고도, 또 사용하지 않고도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골치 아픈 컴퓨터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일로 넘기는 분들도 있다.

한편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컴퓨터에 관한 식견과 조예가 깊은 실력자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필자가 잘 알고 있는 부산의 증권 중소기업조합체의 윤 회장님이라는 분의 경우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윤 회장님은 82세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 지금은 아주 전문가적 수준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e-mail은 물론이고 각종 유무선 인터넷 검색에서 경연대회에도 참가

하고 응용프로그램 활용분야에서는 전문가적 수준의 식견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노인 실력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년에 94세 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배우라고 강권하시는 이 분이 컴퓨터 전도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2년 전인 1992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전국 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1개 대학을 선정, 대학 안에서 중소기업 담당자를 위한 주 20시간 6주간 과정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다. 그 당시 교육용 컴퓨터는 주로 Keyboard만을 이용해서 Word Processor를 비롯한 Spreadsheet 활용, 각종 응용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교육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교육생들은 중소기업들에서 선발된 20대 기업정보화 요원이 주류였고 어쩌다가 30대가 한 두 명 있었으며, 40대 이상은 거의 없이 학급당 30~40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컴퓨터는 젊은 사람

들이나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던 때라 82세 노인의 교육장 출현은 놀라움을 넘어 신기하다는 말로나 표현될 정도였다.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할 때, 가장 큰 애로 사항은 Keyboard에서 타자하는 것인데 돋보기를 써도 글자구분을 못하는 경우다. 더구나 대부분의 노인들의 손가락은 유연치를 못해 타자하기가 어려워 오타 만들기가 일쑤였다. 당시 윤 회장님은 컴퓨터 교육에 대비, 타자연습을 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 혼자서 2개월가량 손가락 두 개로만 연습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 차라리 연습을 하지 않고 입과 했다면, 타자연습 프로그램을 이용, 10개 손가락을 전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전 타자연습이 윤 회장님을 더욱 곤경으로 빠지게 했다. 물론 두 손가락 타자만으로도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힘들고 보기도 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꼭 배우고 말겠다는 의지의 윤 회장님은 매일 교육 시작 4시간 전에 교육실에 들어와 자습하는 등, 다른 학생들보다 배가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다.

그런데 교육 수료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 회장님은 지난번 받은 교육을 재충전하고 응용프로그램기법을 한 수준 높이겠다

는 의도로 동일한 과정에 재입과 한 것이다. 이때 윤 회장님은 나이가 2살이나 위이신 84세의 부인을 동반하시고 오신 것이었다. 부인은 명문 여고를 졸업하신 분으로 사회활동도 많이 하셨으나 재학시절 배우셨던 영어를 오랫동안 활용할 기회가 없어 알파벳까지 완전히 잊으신 관계로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만 하였다.

이들 내외분이 컴퓨터교실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가끔씩 부인이 오타를 치거나 속도가 조금 늦게 되면 윤 회장님의 혹독한 핀잔이나 심한 질타로 노부부간에 언성을 높이는 부부 싸움으로 온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하였다.

노구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대한 높은 열정으로 교육 후 자기 기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 부산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제일 먼저 컴퓨터시스템을 갖추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임으로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 후 노부부는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국가들을 여행하면서도 Notebook 컴퓨터를 이용, 필자에게 여러 번 e-mail로 소식을 보내기도 했으며 문의사항 있으면 e-mail로 먼저 보낸 뒤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곤 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니아로 변신, 인터넷 검색 경연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수준

높은 컴퓨터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올해 94세와 96세인 윤 회장님 내외분은 건강한 몸으로 손자들과 친지들에게 매일 e-mail을 주고 받으며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고 계신다.

요사이는 Notebook PC에 무선 LAN과 Mobile 시스템을 장착, 더욱더 편리한 Ubiquitous 환경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정을 방문 70~80대 노인들에게 컴퓨터 배우라고 권유도 하시고 신기술을 습득 하기도 하시며, 컴퓨터 배우기 모임을 운영하고도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집에 있는 사진을 Photoshop을 활용 Digital로 작성하기 위해 Scanning 작업을 계속, CD-ROM이나 DVD에 저장하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고 한다.

윤 회장님 내외분의 컴퓨터 예찬론은 대단하여 컴퓨터를 배울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 주셨다.

첫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우선 컴퓨터를 배워라.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컴퓨터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고뇌나 잡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습득, 대화의 장이나 오락,

취미생활의 일부를 성취할 수 있으니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해이되는 일이 없어 머리가 항상 맑게 된다. 컴퓨터를 마치고 30~40분 정도만 집안이나 밖에서 육체운동을 지속하면 건강하게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컴퓨터를 배우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신기함을 주는 때도 있고 배우는 것이 안 배우는 것보다 백 배, 천 배 좋고 후회가 없을 것이다. 배우기만 하면 활용할 가치가 무한하지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라.

컴퓨터를 알고 나면 직장과 가정에서 대우가 달라지고 소외되지도 않으며, 손자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라며 자랑하는 것을 보고 듣기도 한다.

둘째, 배우는 시기는 언제부터가 좋냐고 물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유익한 정보는 한시라도 나이가 적은 지금이 최적기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배우면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미리 대비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셋째, 컴퓨터를 배우는 목적은 일상의 생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다. 10개 손가락을 활용하는 타자 법을 익히고 마우스로 Double Click하는 연습만 숙달한

다면 자동차를 시동 걸어 발진하듯이 컴퓨터도 서서히 내 손가락 안에서 기동하기 시작해 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에 접근하기 꺼리는 이유는 Keyboard와 Mouse Click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2가지 것만 불편함 없이 할 줄 알게 되면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컴퓨터를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자신을 가져라.

끝으로 컴퓨터는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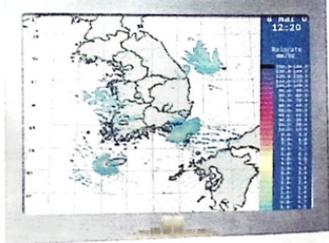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은 우체국이나 구청에 문의하면 노인컴퓨터 교실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다. 무료이거나 교재비 정도 비용만 지불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책을 이용하여 집에서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정규 컴퓨터학원을 권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학습의욕이 고무되어 나태해지지 않고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배우야겠다는 열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결과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교육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도 책임감을 갖고 피교육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체계적인 내용을 터득, 발전 속도도 극대화되어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배우기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손해는 없다. 생활 재충전의 도구이니 늙었다거나 힘들다는 핑계는 접어 두시고 나이가 들어 갈수록 나를 위한 유익한 생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닿으시면 지금이 시작의 적기입니다.



날씨 이야기



* 대기 중 공기의 총무게는 5,000조. 엄청난 무게에도 인간이 압사하지 않은 것은 공기 무게가 전체 지표면에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 지상 1,200m에서 직경 1.5mm 빗방울의 종단 속도(초속)는 7.4m, 공기가 없으면 150m라니 인마살상 무기가 따로 없다. 하늘은 말없이 순리를 행한다.

* 조금만 걸어도 시원한 물줄기가 간절한 날씨. 샤워할 때 수압 높은 물줄기는 피부에 지압 효과를 주고, 음이온을 증가시켜 기분을 맑게 해준다. 루이 14세는 거의 씻지 않고 옷만 갈아 입고 살았지만, 프랑스 향수는 알아준다. 집열불탁(執熱不濯)이라. 뜨거움 쥐고 물로 씻지 않을 수 있리라.

* 여름철 청량음료에 중독 수준인 이들이 많다. 1캔(250ml) 평균 열량이 106kcal라니, 매일 하나씩 마시면 계산상 1년에 체중이 5kg는다. 106kcal는 걷기 41분, 축구, 배구 26분의 운동량이다. 비만 말고도 충치, 배탈을 경계할 음료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동동 떠도.

* 대기 중에 떠있는 수증기의 평균량을 물로 환산하면 두께가 2.6cm, 전체 무게는 13조. 서울 전역에 비가 10mm 내렸다면, 그 무게는 700만으로 추산된다. 비로 물이 불어난

강이 초속 1.8m로 흐를 때, 1평방피트당 수압은 30kg이라니 항우 장사도 못 버틴다. 물로 보지 말한다. 물조차.

무좀(athlete's foot)은 여름이 제철. 각질 많고 덥고 습하고 살이 겹치는 손, 발가락, 사타구니, 겨드랑이를 무대로 피하 0.2~0.3mm 얇은 곳에서 기생/번식한다.

기온 15도, 습도 70%면 신명을 내고, 장마 때가 전성기라니 족욕과 청결이 최상책. 양말이 각을 세울 때, 그 안에 고민이 자란다.

* 태풍(颱風)은 어원이 불분명하다. 太風이라야 맞을 것 같지만 중국 복건성에서 이상하게 강한 바람을 태(颶)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화산, 증기를 일으키는 괴물 '티폰(Typhoon, 히드라부친)'이 어원이라는 설도 있다. 태풍은 북위 5~15도에서 발생, 15~28도에서 최성기, 30도 이북에서 쇠약기를 맞는다. 대개 전향선(轉向線)인 북위 30도에 이르러서야 진로 예측이 쉬워지는 탓에, 그때까지 기상청을 애타게 한다.

* 중북 참외, 말복 수박, 처서 복숭아라. 9% 당분이 내는 강한 단맛, 한 무제에겐 볼로불사의 영력, 무릉도원 매운 선과, 웅녀의 표상. 덕 있는 자에게 사람들 따르고, 복숭아. 오맛꽃과 열매로 말없이 저절로 길을 내니(도리불연 하자성혜).

* 언론이 만들어낸 기상 용어들이 꽤 있다. 불규칙적으로 많은 비를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나 '효자 태풍'이 그 예. '집중 호우'는 1958년 아사히 신문이 지어낸 수입 용어로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 하루 강우량 100mm 이상, 연 강우량의 10%가 하루에 몰릴 때라고 정의했다.

* 잠자리는 헬리콥터의 모델, 공중정지/전진 후퇴 가능한 곡예비행사. 초당 25~30회, 두 쌍의 날개짓이 순간 시속 100km까지 내고, 단번에 30km를 난다. 20m 앞에 열썰대는 해충을 식별해 날름 잡수시니, '잠자리 많은 해 풍년된다' 했다. 날아라 용파리(dragonfly), 논이 신이여.

* "처서(處暑) 지나면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 했으되, 살충제에 내성(耐性)이 쌓여 10월 넘어도 기세 꺾이지 않고 '앵앵' 소리 기막혀 문뢰(蚊雷)라 한다. 모기의 최대 천적(天敵)은 미꾸라지. 모기 애벌레 잡아먹는 선수랍니다.

토룡(土龍)의 꿈은 추탕(餹湯) 속으로 사라졌으니...

* "비의 온도는 5°C이다." 이런 가담참은 유머가 떠돈 것은 30여 년 전 '비가 오도다'로 시작되는 가요가 유행할 무렵이다. '97년 기상현상을 다룬 가요 조사에서 비가 으름, 바람·안개·구름·눈·이슬이 뒤를 이었다. 사계 중에선 봄·가을·겨울·여름순이었다 한다. 가을 비 우산속엔 이슬 맺혔다.

* 기온 21°C, 습도 20%, 쾌청한 날이 골프

의 최적 조건이란. 비 오고 안개 낀 날 비거리는 최고 20야드 떨어지고, 기압이 낮은 산악지대에선 10~20야드 덕을 본다. 습기 때문에 대개 아침, 저녁과 여름에 손해를 본다. 골프는 홀컵에 공 떨어지는 소리 날때까지. 경기엔 저도 사람에게는 지지 마시길.

* 풀벌레들이 내는 소리는 기온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미는 30도를 넘을 때 성량이 좋고, 귀뚜라미는 24도를 전후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특히 14초 동안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를 세어 거기에 40을 더하면 화씨 기온에 가깝게 된다. 만약 36번 울었다면 화씨 75도, 섭씨로 따져 24도 정도가 된다.

* 바닷물 차가워지기 전, 10월은 새우 철이다. "새우는 양기(陽氣)를 북돋으니 총각은 삼가라", 중국에선 "혼자 여행할 때 객지에서 먹지 말라" 했다. 왕새우는 조선, 일본에서 흥역(마진, 癩疹) 앓을 때 먹었던 민간 치료제이기도 했다.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신세라니(경전하사, 鯨戰蝦死).

* 쌀쌀한 가을 기운(숙살지기, 肅殺之氣)이 내려 앉았다. "가을날씨 좋은 것과 노인들 기운 좋다는 말은 믿지 못한다"고, 변화 심하기는 돌이 매한가지다. 인생은 문틈으로 백마 지나침을 보는 것 같다 하나 나이 들수록 의기를 굳게 할 일이다.

자료 : 조선일보 날씨 이야기에서

그릇

제마다 구실 있어 만들어진
세상 속 수만가지 그릇들...

근본은 밥과 찬그릇이듯
제척에 메겨져 그 꼴 따라
제구실 담으면 품격이 아리따다

빛나간 용도, 억지 사용은
있어야 할 곳 제자리 못하고
고집불통 자리 지킴이
담은 것 어설프고 불품도 없다

이미
불가마에서 구워진 진흙
분수에 따른 제 숙명이 뜻이다
그 그릇은
그 그릇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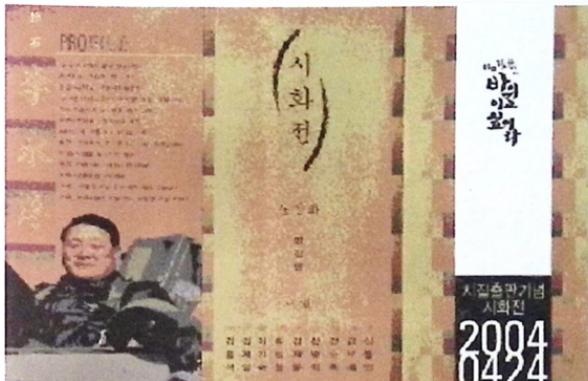


惟石 李 永濠 지음



(공사 19. 예 대령)

문단시인 이영순 비행교수, 시집 출간



남들이 볼 수 없는
형상들을 많이 보았고,
전투조종사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인체 생리의 한계선상에서
생명과 우주의 경이를
알게 되어...

30여 년을 전투조종사로 살아온 공군사관학교 이영순(李永淳, 57세) 교관조종사가 퇴임을 앞두고 시집 <하늘 깊은 곳에서 바위이고 싶어라>를 펴냈다.

이 교수는 조종사이자 문단시인으로서, 이처럼 전투조종사가 시집을 펴낸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212비행교육대대 비행교수로 재직해 온 이 교수는, 지난 1971년 공사 19기로 임관하여 F-4팬텀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95년 공군대령으로 예편, 공사 '교관조종사'로서 총 5,613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진 최고베테랑 조종사이다.

또한 이 교수는 월간 문학세계 제69회 신인문학상 공모에 '돌발 낙동강' 등 다섯편의 시를 출품,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다.

2004년 4월 24일 공군사관학교 성무문화관에서 가진 자신의 시집 "하늘 깊은 곳에서 바위이고 싶어라"의 출판 기념식에서 이 교수는 "남들이 볼 수 없는 형상들을 많이 보았고, 전투조종사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인체 생리의 한계선상에서 생명과 우주의 경이를 알게 되어 시인이 되었다"라며 자신의 시집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 정기총회
- ♣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 ♣ 전역자 현황(기수별 전역자)
- ♣ 알립니다
- ♣ 주소변경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회칙 제4장 12, 13, 14조에 의거 12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6월 17일에 공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제12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하고 회칙 개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7,813명(52기 203명 포함)

현 재 인 원 : 7,158명(별세 18 = 별세 13, 순직 5)

예비역 인원 : 2,361명

※ 애로사항 : 정확한 인원파악 불가, 회원 미등록 인원 다수

주요 업무

가. 회장단 부대 방문(6개 부대)

공군본부 : 2003. 9. 17.	공군사관학교 : 8. 26.
제18전비 : 7. 9.	제20전비 : 10. 31.
제8전비 : 2004. 3. 19.	제3훈비 : 4. 22.

나. 주요 행사 참석

육사 주관 안보강연회(향군회관)	: 2003. 9. 16.
창군 55주년 국군의 날 행사	: 10. 1.
참모총장 이·취임식	: 10. 11.
이라크 파병 쫓기 대회	: 10. 15.
2기 사관 임관 50주년 행사	: 10. 18.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	: 10. 21.
향군 주관 안보 강연회	: 10. 24.
향군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 창간식	: 11. 11.
공군 신년 인사회(2004년도)	: 2004. 1. 14.
3.1절 범 국민구국협의회 안보대책회의	: 2. 3.
친북좌익척결부패추방 3.1절 국민대회	: 3. 1.
사관학교 졸업/임관식(사관 제52기)	: 3. 17.

다. 간담회

- 신·구 총동창회 임원 간담회 : 7. 3.
- 공군 전우회 임원 간담회(오찬) : 2회
- 운영기수 이사 간담회 : 6회
- 회장단 월례회 : 6회
- 등산반 간담회(산행) : 10. 16.

라. 본회 방문자(2회)

- 신임 공군참모총장 : 10. 15.
- 육사 총동창회 임원 : 8. 25.

마. 회지 발간

- 발간 횟수 : 2회(2004. 1. 1./7. 1.)
- 발간 부수 : 3,500부
- ※ 편집위원회 운영

바. 규정 제정(2건)

- * 회비관리 규정(안)
- * 사무실 운영 규정(안)
 - ※ 사무실 운영 규정에 의거
 - 여직원의 퇴직금 적립 근거
 - 근로계약서 작성 근거 마련

사. 병 위 문 : 이태식, 설민진, 12기 고광덕, 13기 이병길

아. 기 타

- * 弔旗 택배 회사 계약
 - 기 간 : '03. 11. 28. ~ '04. 11. 27.
 - 회사명 : 하이웨이 디·디
- * 비품 구입
NOTEBOOK, 탁자, 전자레인지 각 1대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1. 평생회비 납부현황(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평생회비 완납 기수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5

나. 11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4. 1. 1.~2004. 6월 17일 현재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4	65	55	10	신정식, 이우영
13	46	42	4	조대길
16	56	41	15	조창조
17	60	45	15	
18	64	52	12	진운섭, 정운태, 정용진
19	72	41	31	전재구, 김만철
20	94	43	51	김영한, 장유춘, 전호원
21	97	34	63	마순복, 김광진
22	103	30	73	김인식, 장영현
23	109	31	78	이동호, 최상의, 장창연
24	130	49	81	김상철
25	124	25	99	
26	123	16	107	오중기
27	125	14	111	박경규, 이무섭
28	122	12	110	
29	141	30	111	
30	152	8	144	
31	166	7	159	
32	168	2	166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33	173	12	161	
34	167	7	160	
35	252	5	247	
36	256	5	251	
37	252	2	250	
38	233	1	232	
39	222	1	221	
40	243	0	243	
41	242	1	241	
42	277	0	277	
43	271	0	271	
44	211	4	207	
45	211	0	211	
46	230	0	230	
47	201	0	201	
48	193	103	90	
49	199	0	199	
50	193	0	193	
51	203	0	203	
합	현재인원 : 6,973	납부인원 : 1,469	미납인원 : 5,504	

※ 11차년도 납부자 : 71명(2003. 7. 1.~2004. 6. 30.) - 하반기(36명), 상반기(35명)
회비는 납부하셨으나 기수를 명기하지 않으신 박경진(1. 26.), 현용희(2. 25.), 최영숙
(2. 26.) 회원께서는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 납부자 현황

(2003년 12월 31일 현재)

기 수	납 부 자 명 단
4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재운, 김환중, 박병순, 박상조, 박승준, 박예재, 박오하, 박웅진, 박재진, 박전하, 박차식, 배강희, 서극수, 서동열,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낙영, 유동천, 이래석, 이순요, 이시우, 이조한, 임병열, 장남춘, 장무익, 정구현, 정낙영, 정봉규, 정봉현, 정연봉, 정진모, 정현국, 조경래, 조봉구, 조옥찬, 최병기,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학, 황규복, 김의경, 박찬득, 양신석, 김재두, 최영근, 유현주, 이종국
13	권희본, 강신해, 고명준, 곽갑순, 김무신, 김양수, 김영부,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언, 문기철, 민양식, 손덕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윤재명, 이강평, 이기현, 이병길, 이승대, 이승배, 이완구, 이정호, 이준순, 이종대, 이종화, 이태규, 이회관, 장덕수, 정영호,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용, 최영덕, 최인일, 최종덕, 태종민
16	강철수, 권명남, 김문기, 김성구, 김신흥, 김의림, 김정갑, 김정욱, 김종환, 김현석, 김희동, 박성국, 박경용, 박영기, 박영훈, 배정영, 배충정, 백동기, 서효창, 양길수, 오창모, 이상렬, 이선기, 이성우, 이수웅, 이재기, 임정빈, 장정동, 장진수, 전광남, 정해창, 주창성, 지양일, 최동철, 최명상, 최양용, 신무광, 이은양, 정준식, 최동빈
1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용수, 김익창,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수, 서정운, 송대성, 안광수, 어수연, 원철희, 유성열, 유정용,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규희, 이문호, 이성울, 이용대,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상용, 장호근, 조규식, 차옥환, 한형택, 황창번, 박운교, 손종호, 차선규, 최복현, 최석권, 임홍규, 상석곤
18	곽조휘, 강재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나금복, 류효열, 박경점, 석현수, 선치수, 손인익, 송희전, 신명호, 신평근, 엄이웅, 오인성, 오병한, 오환근, 윤관중, 윤봉수,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학,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장용주,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천기광, 허 한, 김정수, 박문현, 조남홍, 김재광
19	김덕실, 김명립, 김영철, 김인열, 김정진, 김현진, 박 열, 박희채, 백철인,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양홍진, 유병구, 유병권, 유승렬, 윤정채, 이근식,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호, 이성을, 이승호, 이영순, 이인형, 이종관, 임종태, 장희천, 정성진, 정하섭, 조명래, 조윤희, 지광식, 편세영, 하석태, 홍강표, 김복만, 박상인

기 수	남 부 자 명 단
20	강만수, 김동래, 김삼교, 김성두, 김성일,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문태일, 박 영, 백재현, 손준영, 이정학, 이영원, 이영희, 이재원, 이종록, 이치훈, 장성문, 정제택, 정철호, 조태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상열, 이병기, 이석규, 임근배, 김점태, 이사룡, 김광영, 안상복, 박동형, 김규식, 김덕선, 이정호, 김원춘
21	강남식, 권 근,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태욱, 명철원, 민병홍, 박경석, 박희영, 배민섭, 배창식, 박천수, 성광준, 성봉환, 송동근,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장성태, 정용은, 조오현, 한홍섭, 홍종백, 황사홍, 박건욱, 유관욱, 황성창, 김동기
22	강수준, 강희찬, 김은기, 남백우,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증열, 송인선,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정갑순,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한종호, 류양수, 이광희, 한용섭, 김재승, 임인빈, 오봉진
23	구본담,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형선, 박종철, 이계훈, 이영덕, 이은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최진수, 하창호, 조원건, 함경만, 김상문, 박종화, 윤남수, 이상진, 정희균, 정희진, 한규섭, 허일영, 이수현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공운석, 김광묵, 김명익,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 백윤호,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병용, 염경식, 이기용, 이월중, 이영재, 이영종, 이용상, 이재강, 이철순, 전남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주신호, 주종수,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종용, 최홍진,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송광호, 이봉운, 백영남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김국휘, 김진태, 김종흙,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춘한, 손명환, 심재명,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이귀형, 이석찬, 이성재,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홍건표, 권용국, 성신모
26	김태영, 박인규, 배충영, 변종돈, 송길수, 심상철,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최병학, 최지수, 허종순, 이봉준, 전성관, 이상길B, 기예호
27	고덕규, 고용하,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한병국, 홍성은, 신해철, 이영만

기 수	납 부 자 명 단
28	김남수, 김주언, 신영덕, 윤 우, 음종민, 최상일, 하태직, 김명호, 조민식, 윤상보, 이태용, 황신섭
29	김경호, 김석종, 김성진, 김영권, 김영분,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균, 오영분,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한봉규,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김윤희
30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완, 장덕진, 정규호, 차주섭, 채종목
31	강경한, 김철승, 신재현, 조환기, 김홍준, 임봉수, 장영익
32	김현곤, 심부수
33	박수철, 유준종,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재홍, 장경식2, 정영철, 정희주, 심동섭, 이동교, 한상균
34	감수봉, 송광혁,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정상길, 정찬영
35	김종은, 민태기, 서완석, 강규식, 류영관
36	김성균, 김응문, 박종국, 박홍식, 나문관
37	이재섭, 최기명
38	이정호
39	최정모
40	
41	김민호
42	
43	

기 수	남 부 자 명 단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46	
47	
48	<p>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근,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p>
49	
50	
51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로 튼튼하게 성장·발전합니다

2. 제11차년도 찬조 현황(협조와 지원에 감사합니다)

가. 기별 분담금 찬조(임원기수 3기~31기)

	기 수 별	비 고
40만원	3기~10기	완 납
60만원	11기~31기	1,580만원

나. 일반 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김 대 욱	100만원	전 공군참모총장
서 동 열	20만원	향군 공군부회장
김 홍 래	10만원	10차년도 회장
한 정 복	20만원	10차년도 부회장
김 상 태	100만원	전 공군전우회장
이 한 호	100만원	공군참모총장

다. 광고 찬조

기 관	금 액	월 일	비 고
한국 광업진흥공사	100만원	'04년 2월 1일	사장 박춘택 전 총장
한국석유개발공사	100만원	'04년 1월 16일	사장 이억수 전 총장
보잉 한국지사	100만원	'04년 5월 17일	사장 이강명 회원

라. 운영기수(11기) 찬조

고성룡, 공종억, 권태정, 김광현, 김달수, 김동호, 김두석, 김옥주, 김용찬, 김원규, 김정남, 김종표, 김판수, 명영남, 민영일, 박수길, 박용이, 박재희, 배말희, 서봉철, 송문호, 신기순, 신병화, 신보연, 심기섭, 안병문, 양민호, 양종택, 윤동섭, 윤봉한, 이관영, 이광학, 이규형, 이승오, 이이철, 이태식, 임지호, 전세일, 정 훈, 정지수, 조남탁, 최동환, 최문강, 최희영, 하길수, 한계섭, 한만성, 한영석, 한호석, 허차동

※ 명예회원 3명 포함 51명 중 50명 찬조(98%)

3. 11차년도 운영 결산

가. 적립기금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인수	312,760,000	10차년도
평생회비	9,700,000	
이자수입	11,963,070	
적립총액	334,423,070	

나. 운영금 모금

구 분	계 획	실 적
11기 찬조	35,000,000	35,100,000
기별분담금	15,800,000	15,800,000
회원찬조	4,000,000	3,500,000
광고비	4,000,000	3,000,000
이월금	2,000,000	2,000,000
계	60,800,000	59,400,000

다. 운영금 집행 현황

항목	사업명	예산	집행	비고
1	정기총회	3,500,000	3,760,000	우편료 추가
2	총이사회	2,000,000	1,302,600	
3	회지발간	3,700,000	3,690,100	
4	동창회장상	1,000,000	1,000,000	52기 소위 유명광
5	배지제작	500,000	*	미집행
6	모교 방문	3,000,000	3,000,000	삼사 행사 지원
7	부대 방문	2,000,000	1,200,000	공본, 공사, 비행단
8	간담회	4,000,000	4,397,690	신·구 회장단 이사 간담회
9	경조비	1,000,000	763,000	弔旗로 대체
10	임관행사지원	2,000,000	1,820,000	2기 사관(50주년)
11	동문위문	1,000,000	1,000,000	12기 고평덕, 13기 이병길
12	바둑대회	1,500,000	1,400,000	동문 친선
13	사무실 임대료	1,500,000	1,409,790	토지사용료, 전기세, 보험료
14	운영비	6,000,000	5,260,840	사무실 운영
15	인건비	20,800,000	21,074,500	'03년 9월 2명
16	해외동문	1,000,000	56,000	회지 발송
17	예비비	5,300,000	5,296,100	
18	비품구입	1,000,000	960,000	
19	이월금	0	2,000,000	12차 운영기수
계		60,800,000	59,390,620	

4. 상정안건 의결

안 건	내 용												
1. 11차년도 기금 결산	인수기금 : 312,760,000 기금증식 : 20,763,000 총 기 금 : 333,523,070												
2. 이사 기수 의결	12차년도 이사 기수 : 4기~32기												
3. 12차년도 임원 선출	회 장 : 박춘택												
	부 회 장 : 강영식, 김영식, 김영웅, 박덕희, 박상철, 배양일, 신동운, 이상경, 이상순, 이종양, 이흥우, 정판중, 홍종건												
	감 사 : 민항식, 배기준												
	사무총장 : 정민남												
	후원(이사) : 12기 사관 일동												
4. 회칙 제정/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회비관리규정</th> <th>사무실운영규정</th> </tr> </thead> <tbody> <tr> <td>근거</td> <td>회칙 제6장(제정) 제21, 22조</td> <td>제7장(일반사항) 제26조</td> </tr> <tr> <td>제정이유</td> <td>회비의 종류만 명시 평생회비에 대한 관리/운영 에 대한 지침의 미규정화</td> <td>회장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모호한 표현</td> </tr> <tr> <td>제정내용</td> <td>회비의 개념 정립 납부시기와 금액명시 회비관리의 명확성 제시 예탁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정관리지침대체(2001)</td> <td>내용보완 사무실 근무자(여직원포 함)의 직능과 책임부여 여직원의 복지도모(퇴직 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거</td> </tr> </tbody> </table>		회비관리규정	사무실운영규정	근거	회칙 제6장(제정) 제21, 22조	제7장(일반사항) 제26조	제정이유	회비의 종류만 명시 평생회비에 대한 관리/운영 에 대한 지침의 미규정화	회장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모호한 표현	제정내용	회비의 개념 정립 납부시기와 금액명시 회비관리의 명확성 제시 예탁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정관리지침대체(2001)	내용보완 사무실 근무자(여직원포 함)의 직능과 책임부여 여직원의 복지도모(퇴직 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거
		회비관리규정	사무실운영규정										
	근거	회칙 제6장(제정) 제21, 22조	제7장(일반사항) 제26조										
제정이유	회비의 종류만 명시 평생회비에 대한 관리/운영 에 대한 지침의 미규정화	회장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모호한 표현											
제정내용	회비의 개념 정립 납부시기와 금액명시 회비관리의 명확성 제시 예탁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정관리지침대체(2001)	내용보완 사무실 근무자(여직원포 함)의 직능과 책임부여 여직원의 복지도모(퇴직 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거											
5. 弔旗 지원확대	현 행 : 본인에 한함. 방안 1 : 본인 포함 부, 모, 부인까지 방안 2 : 본인 포함 부, 모, 부인, 장인, 장모까지 장점 : 회원 요구에 부응 회원 상호간 깊은 유대감 형성 단점 : 운영 예산의 증액 弔旗의 추가 제작에 따른 예산												

전역자 현황(기수별 전역자)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3. 11. 13.	중위	김남현	0003	51		대령	장성태	4009	21
'03. 12. 5.	중령	김천곤	1407F	40		대령	신문식	1049F	21
'03. 12. 12.	중위	이인성	5506	49		대령	민병홍	1409F	21
'03. 12. 27.	대위	하승호	1407F	45		대령	변현태	7209	24
'03. 12. 31.	준장	장원초	0002	21		'04. 1. 31.	대령	이무훈	9409항이
	준장	마순복	0002	21	중령	서상원	7008	31	
	준장	박천수	0002	21	중령	이강호	7508	31	
	준장	김인식	0002	22	중령	임봉수	5508	31	
	준장	정장교	0002	22	'04. 2. 13.	대령	조주형	1409F	23
	준장	정 양	0002	22	'04. 2. 29.	중령	강일규	1408W	24
	대령	권희만	1409F	29		중령	윤정진	1408C	25
	중령	강임규	1408	24		중령	김창휘	1408W	29
	소령	이성진	8107	35		소령	채경호	8007	38
	소령	이관태	1407F	38		소령	지금배	3007	41
소령	이영성	6707	39	대위		김근태	7507	42	
'04. 1. 31.	중장	주창성	0002	16		대위	김동환	8007	47
	중장	박성국	0002	16		대위	이명철	1407W	47
	준장	홍 민	0002	20		대위	김주현	1807	47
	대령	황호상	1409F	21		대위	김인국	8007	47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4. 2. 29.	대위	박상선	1407T	47	'04. 4. 30.	소장	유병구	0002	19
	대위	이승덕	4607	47		소장	장희천	0002	19
	대위	윤석인	1707	47		대령	강한중	1709	21
	대위	송영범	3007	47		대령	이정진	7509	24
	대위	신진우	8007	47		대령	조진경	8009	24
	대위	최승택	3007	47		대령	김경진	1409W	25
	대위	이용건	4607	47		대령	김인홍	8109	29
	대위	황세현	7507	47		중령	송한복	7508사	24
'04. 3. 11.	중령	엄상호	1407F	39	중령	서성훈	7508	24	
	소령	한세희	1407F	43	중령	전병욱	1408F	24	
'04. 3. 31.	준장	이기주	0002	23	중령	박수철	8108	30	
	대령	배덕환	1409F	27	중령	송일영	1408F	30	
	중령	이재춘	7508사	23	중령	남보우	3008	31	
	소령	이창수	1409F	39	'04. 5. 31.	대령	이상철	5509	3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 일	기 수	성 명	관 계
1월 10일	17	상석곤	장남
3월 6일	11	김옥주	차남
3월 20일	14	문정구	장남
3월 27일	20	김우식	자녀
3월 27일	24	정인성	장녀
4월 5일	11	한만성	장녀
4월 10일	11	한계섭	장녀
5월 1일	19	한장석	차녀
5월 5일	19	백철인	장녀
5월 8일	21	이정석	차남
5월 15일	19	전재구	차남
5월 16일	11	한호석	차남
5월 22일	19	임종태	차남
5월 26일	12	강영식	장남
5월 29일	20	김덕선	장남
5월 29일	11	명영남	장남
6월 12일	11	고성룡	삼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004년 1월~6월 17일).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2월 3일	2	이창수	별세
2월 21일	4	안화선	별세
3월 11일	39	엄상호	순직
	43	한재희	
4월 11일	13	이병길	별세
4월 23일	3	국대현	별세
4월 27일	2	이문환	별세
5월 24일	6	정용후	별세
6월 10일	15	남상혁	별세

※ 알립니다 : 앞으로 哀事 시에는 총동창회의 弔旗로 弔花를 대신합니다.



주소변경

(2004년 1월~6월 17일 현재)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손주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경(아) 18-1306	426-767	031-405-7506
2	명의창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한강맨션 37-104	140-031	
3	백낙승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918-3 라인(아)2차 105동 401호	506-010	062-944-1562
4	안우일	서울 양천구 목6동 한신(아) 105-202	158-759	2645-3641
5	송기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12 효성(아) 1-204		
6	이동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 뉴타운(아) 9동 1108호	431-843	
8	조현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C동 903호	463-834	607-3686
9	이기봉	경기 고양 일산구 일산3동 1048 후곡마을 영풍(아) 503-403		
9	이양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C동 1204호	463-834	031-782-0988
9	정원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셋별마을라이프(아) 110-1103	463-748	031-702-7744
9	함종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35-7 201호	463-815	031-726-2941
9	천왕봉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1 운정마을(아) 102-1302	449-560	031-274-9742
10	장영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신3-2 미션포인트	476-921	031-774-9813
10	김완수	경기 용인시 도곡동 영문리 555 베머루마을 베네치아 빌리지 105-202	449-813	031-335-1875
11	김옥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삼성레미안(아) 127-1002	431-759	031-465-3066
11	양종택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주공1단지(아) 107-1001	361-709	011-9836-2331
12	김태규	제주시 건입동 666-10 전원아트빌 302	690-050	064-702-6406
12	박상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4번지 현대아파트 103-2003	150-042	2632-8491
12	박원규	경기 용인 구성읍 마북리 629 삼거마을 삼성레미안1차(아) 109-1203	449-557	031-285-3494
12	신동윤	경기 용인시 죽전동 대지마을 중앙하이츠빌 103-701	449-845	
12	심재운	서울 서초구 방배1동 884-2 방배e-편한세상 103-08	137-841	
13	이기현	서울 서초구 잠원동 66-3 동아(아) 107-1304	137-948	536-8430
14	박종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61번지 리첸시아 A동 3804호	150-896	780-6210
14	한용길	경기 용인시 상현동 824 쌍용(아) 177-604	449-522	031-891-7523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5	정청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LG(아) 201-1103	463-909	031-718-9970
18	이선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5 Top마을 경남(아) 714-403		704-8019
19	이인형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7 현대1차(아) 106-201	121-040	703-6431
20	김태선	서울 강서구 등촌2동 l-park아파트 112-1201	157-032	
21	금영수	서울 서초2동 1359-50 롯데캐슬주피터 101-202	137-773	
21	최천락	경기 양주시 고암동 122 동암마을 주공(아) 311-2104		
23	최상익	서울 강서구 방화1동 875 동부센트레빌 102-401	157-221	6091-6126
23	한규섭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 삼성(아) 101-1703	121-060	6394-0656
23	이수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 C동 803호	150-875	785-5828
24	김상철	경기 평택시 신장동 사서합 309-25		930-7500
24	염경식	서울 중구 태평동2가 150 삼성생명빌딩 17층	100-716	727-3260
24	박승락	경남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 103-401	621-752	055-328-4365
25	이석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현대(아) 1202-504	411-312	
28	이태용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2동 787 강촌마을 311-1504	411-716	031-817-1209
32	박준수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5차 우성(아) 502-501	135-854	577-6351
34	송광혁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 303-903	411-716	

회비납부안내

- **會員 회비 : 기본회비 (평생회비)**
 - 10만원 (1회 납입으로 종료)
 - ※ 미납자에게는 평생회비 지로용지 발송
- **기별 분담금(연 1회) : 2004. 7. 1. ~ 2005. 6. 30.**
 - 4기 ~ 11기 : 40만원 - 12기 ~ 32기 : 60만원
- **은행계좌**
 - 평생회비 : 지로용지 사용
 - 혹은 우리은행 319-239049-01-001(예금주 : 공사총동창회)
 - 기별분담금 : 우리은행 319-304845-02-001(예금주 : 정민남 = 사무총장)
 - ※ 매년 7월 1일부터 운영 기수 변경으로 반드시 계좌 번호 확인 후 입금
- **연락처(총동창회)**
 - * 주 소 : (156-808) 서울 동작구 대방동 358-1 공사총동창회
 - * E-mail : airfa04@hanmir.com
 - * 전 화 : (02) 823-1091 - 팩 스 : (02) 823-1092



편집후기

회원님들께서 사랑하시는 회지가 되도록 격려하여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영남, 서봉철, 안병문 편집위원과 일년간 본 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고안내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 발행되는 동창회지에 논단,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전문 분야 소개 및 생활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관심분야 등) 등에 관한 내용의 기고를 언제든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일 : 2004. 7. 1.

발행인 : 이광학

편집인 : 최문강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8-1(우 156-808)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E-MAIL : airfa04@hanmir.com

HOME PAGE : <http://공사총동창회.com>

우리 아이들에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보잉은 대한민국 수호에 진정한 동반자임과

항공우주산업의 변영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물려

주고 싶은 보잉의 분명한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